

사설

동문찾기 캠페인의 성과

'개교 50주년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올해 4월경 부터 계속되어왔던 '경희 동문찾기캠페인'이 지난 7월 말 최종 완료되었다. 이번 동문찾기 캠페인에는 총 1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원 봉사자와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인원이 투입되었다. 그 결과 약 7만명의 경희동문을 찾아 새로이 동문록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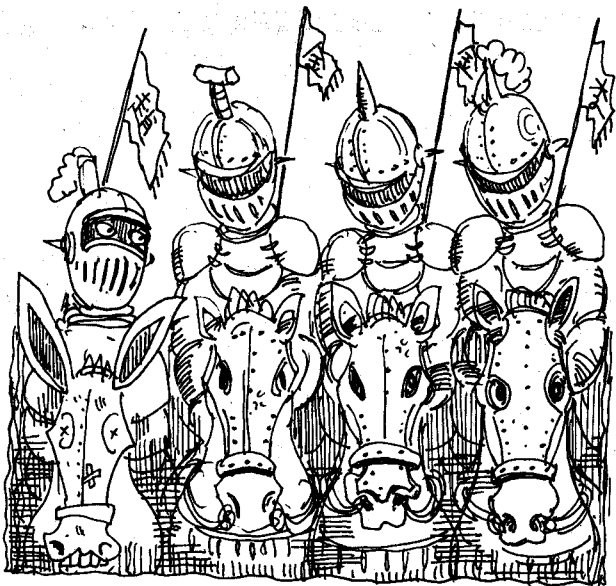
사실 지금까지 우리학교 동문회는 그리 활성화되지 못했다. 94년 마지막으로 갱신했던 동문록도 동문정보 일치율이 20% 밖에 안되어 그저 말뿐인 동문록이었다. 또한 동문찾기에 학교측의 예산지원도 넉넉치 않아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동문들 중 3만명에게만 동문회보를 돌리는 등 완벽한 동문관리를 해오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을 통해 내년 3월경에는 7만명이란 동문이 추가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동문록이 출간된다니 여간 기쁜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렇게 찾은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동문들이 학교를 찾을 수 있는 여러 소규모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대학이 소위 '명문'이란 타이틀을 얻으려면 동문들의 힘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명문이라 일컬어지는 타 대학의 경우 모두 별도의 동문회관 건물이 있으며 조직적인 관리를 하는 등 동문관리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이러한 관리 하에 학교시설 등에 대한 동문들의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학교 행정에 대한 건의 등 모교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을 촉발하여 결국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동문들은 무엇보다도 막대한 정이 느껴져야 다시금 모교를 찾을 것이다. 우리학교의 동문찾기 캠페인도 다시금 자신을 기억하고 연락을 주는 모교의 노력의 결과로서 7만이라는 동문을 새로이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동문들의 마음을 얻었으니 예산배정문제도 활발하지 못했던 동문회보 발송을 더욱 확장하여 그러한 정을 계속 이어가야 하겠다. 또한 재학생들과 동문들간의 유대관계 구축에 더욱 많은 활로를 모색하여 모교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동문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토대가 마련된다면 동문찾기 캠페인의 결정체로 독립된 동문회관 설립도 검토해볼만 하겠다.

고향만평

김진우



"야 / 빠져"

시론 통신검열에 대하여

검열에 발목잡힌 전자민주주의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기존의 매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매체의 출현을 경험하고 있다. 그 매체는 시간과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관심사를 같이 이야기하고 때론 커다란 사회적인 반향을 만들어 내어 현실을 변화시키고도 있다. 인터넷, 정보화사회, 정보초고속도로, 정보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장미빛 환상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에 의한 각 통신망에서의 ID, 게시물 삭제제를 보면서 정보화사회가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이 환상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통신공간에도 검열의 바람이 매설되기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인들의 글이 삭제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검열이란 '특정한 윤리관과 사상의 관철을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강제적 수단을 통하여 제한하는 모든 강제적 통제를 행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작년 영화법 제12조, 곧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가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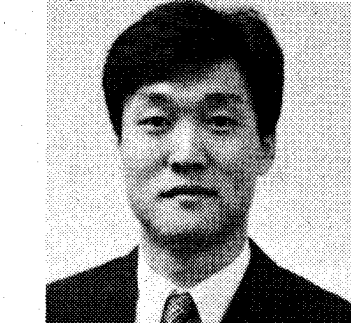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영화법 사전심의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거의 같은 시기에 음악인 정태춘에 의해 제기되어 있던 음반의 사전심의 역시 위헌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영화와 음반에 대한 검열이 사라지고 '표현의 자유'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독립영화제, 시민영화제 등에 대한 검열 및 상영금지, 소설가에 의한 각 통신망에서의 ID, 게시물 삭제제를 보면서 정보화사회가 언론에서 떠돌고 있는 것 같이 환상적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통신공간에도 검열의 바람이 매설되기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통신인들의 글이 삭제되고 심지어 구속까지 당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검열 상황도 별 차이가 없다. 5월 24일 한시 및 통제행위 로 규정할 수 있다. 작년 영화법 제12조, 곧 공연윤리위원회라는 국가기관에 의한 '심의'가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문태준 (바둑도 회원)

를 당했고 이후 천리안, 하이텔, 참세상에서도 정보통신부의 협조요청이나 명령에 의해 많은 사람의 ID가 가장 최첨단이라고 일컫는 통신망에서의 최근의 검열사례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검열의 칼날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례이다.



이석만

(외국어대학 교양과 교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나는 매 학기가 시작될 때면 항상 고민에 빠진다. 어떤 연극을 선정하여야 학생들이 좋은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까하는 것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극관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잠재 관객인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보는 연극은 중요하다. 특히나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교양과목이니까 학점따기 쉬워야 하고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극장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학점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세계연극제가 개최되어 세계의 1백여개 작품과 우리나라의 호평을 받은 공연들이 초청공연 형식으로 많이 공연되기 때문에 걱정하마를 덜게 되었다. 이 연극제를 통하여 세계의 연

대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판단을 한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디 사용증지와 게시물삭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동법시행령 16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을 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은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곳만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쌍방향의 매체이다. 만약 게시판에서 문제되는 게시물이 있으면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용자의 자발적인 토론과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화해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통신 매체까지 정부의 인위적이고 과

대한 통제하에 두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판단을 한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엄격한 사법적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디 사용증지와 게시물삭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및 동법시행령 16조는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사법적 판단 없이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불온통신을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규정을 하여 정보통신부 장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정치적인 검열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컴퓨터 통신은 다른 매체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곳만은 아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쌍방향의 매체이다. 만약 게시판에서 문제되는 게시물이 있으면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이용자의 자발적인 토론과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 화해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통신 매체까지 정부의 인위적이고 과

사자 후 '사자후'는 강단시론의 새 이름으로 '사자의 울음소리'란 뜻입니다.

세계연극제와 대학연극

국민들은 한바탕 축제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대학생들은 이러한 기회에 세계의 유명한 연극을 관람하고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연극제라는 목적인 행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우리 연극을 생각해 본다. 세계와 건줄만큼 연극제가 발전했는가라는 물음에 긍정보다는 부정적이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가 우선이고 문화는 뒷전이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순수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극은 예전 좋은 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 할 수 있을까하는 것으로 말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극관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잠재 관객인 그들에게 있어서 처음 보는 연극은 중요하다. 특히나 교양과목으로 수강신청한 학생들은 교양과목이니까 학점따기 쉬워야 하고 까다롭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극장을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고, 학점을 포기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는 세계연극제가 개최되어 세계의 1백여개 작품과 우리나라의 호평을 받은 공연들이 초청공연 형식으로 많이 공연되기 때문에 걱정하마를 덜게 되었다. 이 연극제를 통하여 세계의 연

현상 중의 하나가 대학생들의 편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기 보다는 기성의 유행을 좇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극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여럿의 힘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을 공연하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 두 달 이상을 준비하고 3-4일 정도의 공연으로 끝을 낸다. 이런 허투루 일에 열정을 바칠 대학생이 얼마나 있겠는가. 임시지옥을 벗어나 대학에 들어오면 취직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요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런 열정을 찾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다. 우리 대학에 있는 여러 극단의 대표자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극단을 초월하여 한 학기에 한 편이라도 제대로 된 작품을 공연해 보라는 것이다. 기성극단에서 했던 유명한 작품을 재공연하기 보다는 대학생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작품을 선정하여 힘을 하나로 모아 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일반 학생들도 대학극의 매력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의 관심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학문화의 순수함과 정열을 뽐낼 수 있는 유희로의 역할을 대학극이 맡아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일 것이다.

One & Only

보는 눈이 다르다면 미래가 달라진다.

보다 멀리 볼 줄 아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직 최고를 향하여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40년 역사를 바탕으로, 코오롱은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미 과천 신사옥을 완공하였고, 첨단 섬유공학,

정보통신, 유통, 레저 등 미래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진보적인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

그 곳에 코오롱이 있습니다.



The future together

